

고기능성 화학 소재 개발 '박차'

삼양그룹 "식품·화학·패키징·의약바이오 사업 등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중"

삼양그룹의 화학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삼양지는 자체 고분자 화학 기술을 기반으로 플라카보네이트(PC)를 비롯한 다양한 고기능성 화학 소재를 생산 중이다.

PC는 투명성, 내열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해 전기 및 전자 부품과 자동차, 의료용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의 일종이다.

국내 최초의 PC 생산업체인 삼양화학은 주 생산 기지인 전주 EP공장에 연간 12만 톤 규모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140여 종에 달하는 제품 그레이드를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전주 EP공장은 전 공정의 자동화 구축을 통해 생산 일정을 단축시키고 불량률 제로를 달성하는 등 생산력과 기술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삼양그룹은 PC 수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외 PC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구축 중이다.

최근 삼양그룹은 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스페셜티 소재(고기능성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양그룹은 이를 통해 현재의 주력 사업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멀티컴퍼운드, 컴포지트, 스페셜티 케미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개방형 혁신은 외부 역량과 내부 역량을 결합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식품, 화학, 패키징, 의약바이오 사업 등 그룹의 전 사업 영역에서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혁신의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삼양그룹의 R&D성과 발표회인 SIRF(Samyang Innovation R&D Fair)에서 최우수 R&D과제로 선정된 금속 필감의 플라스틱 소재가 대표적이다.

금속 필감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는 다양한 색상과 프리미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어 생활 가전, TV,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 소재는 도장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조업체에서 각광받고 있다. 도장 공정이 없어서 재활용이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속 필감 소재들은 외관 불량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삼양그룹은 유럽계 기업에서 확보한 기반 기술에 삼양사의 고유 기술을



삼양그룹 김운 회장이 최근 판교의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삼양이노베이션 R&D페어 2017(SIRF 2017)에서 우수 연구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삼양그룹은 매년 SIRF를 개최해 연구원들의 R&D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식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집적시켜 외관 불량 문제를 해결했다. 외부 기업과의 협업으로 제품화 속도를 높이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금속필감 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확대했다.

출시 첫해 7톤 내외를 판매한 이 제품은 올해 300배 성장한 2천 1백톤의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삼양그룹 김운 회장은 SIRF 2017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 스페셜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은 R&D"라고 강조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시장 및 고객 중심 연구 ▲데이터 기반 R&D를 실천할 것을 연구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금융당국, K-OTC 내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금융당국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내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K-OTC 내에 벤처캐피탈(VC), 전문 엔젤 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 증권 발행 및 예약 지정 등을 폐지한다. 현재 K-OTC 거래 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약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도 확대한다.

전문투자자가 다년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거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부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되면서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1

무진장 농어촌공,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14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운영대의원, 농업용수이용자, 시설관리원, 지역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사의 주요업무 및 역할과 기후변화 추세 및 물발생현황 그리고 대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특별강연으로 한국웃음운동연합회 강정의 교수를 초빙하여 웃음이 주는 효과와 행복한 삶이란 무

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 들으며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무진장지사는 올해에 이상기후 및 계속되는 가뭄에도 농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 영농을 위해 농업용수공급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장수, 진안, 무주 지역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현대차, 글로벌 수소사회 구현

정부·지자체·기업 등 다자간 공동 협업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맡는다.

완성차, 부품, 에너지, 중공업 등 수소 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 글로벌 아젠더로써 수소사회를 부각시키고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지역 등 정부, 지자체 및 기업 등과 다자간 공동 협업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공극의 친환경·미래 에너지 수소는 최근 ▲수 천 만개 일 자리 창출과 ▲수 천 조원 규모의 신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하고, ▲전(全) 지구적 이슈인 에너지 부족과 ▲온실가스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3일(현지시간) 독

일 본에서 열린 '제 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양웅철 부회장이 공동 회장으로 선출되고, 현대차가 회장(사) 역할을 맡아 위원회를 대표해 수소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3, Conference of Parties) 기간 중 개최된 이번 총회는 수소위원회의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전기차가 전 차급으로 확대되고 ▲승용차 4억대 ▲트럭 1500~2000만대 ▲버스 500만대가 도로를 달릴 것으로 예측됐다. 대수 기준으로 수소전기차가 전체 차량의 20~25%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외국인, 3개월 만 주식·채권 '순매수'

두 달 연속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주식 2조4190억원, 채권 6980억원을 순투자해 총 3조1170억원이 순유입됐다.

앞서 외국인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4조5840억원, 4조8340억원의 주식과 채권을 순매도 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함에 따라 상장증권 보유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월 말 현재 외국인은 주식 651조2000억원, 채권 101조2000억원 등 총 752조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주식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1조5000억원), 미국(1조1000억원), 아시아(4000억원) 등은 순매수했으나 중동(89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주식 보유규모는 미국이 272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183조9000억원), 아시아(80조3000억원), 중동(26조9000억원) 순이었다.

채권투자의 경우 아시아(5000억원), 유럽(2000억원) 등이 순투자했으나 미국(2600억원) 등에서 순매도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4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9%였다. 유럽(32조6000억원), 미주(11조3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1

살충제성분 계란 '전량 폐기'

충남 천안·전북 김제 등 전국 4곳 계란 회수

충남 천안, 전북 김제 등 전국 4곳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론이 검출돼 해당농가가 해당 농장 계란 회수와 폐기 처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전통신장과 온라인 쇼핑물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충남 예산 호성농장, 천안 계룡농장, 천안 재경농장, 전북 김제 사람농장 등 4곳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농장에서 생산 유통된 계란의 난각코드는 11호성(호성농장), 11계봉(계룡농장), 11재정(재경농장), 12JE(사람농장) 등이다.

정부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승애농장(1만5000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월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뉴스1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